

‘AI 심장’ 광주, 반도체 뒷문 잠그는 ‘패키징’ 열쇠 쥐었다

수도권 ‘메모리 허브’, 광주 포함 남부권 ‘소부장·패키징 거점’ 이원화
광주 ‘첨단 패키징’ 특화 … AI 시대 반도체 고부가가치 영역 선점 기회

정부가 10일 내놓은 ‘K-반도체 육성전략’을 보면 광주시가 맡게 될 역할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정부는 수도권 용인·평택을 ‘제조(메모리) 허브로, 광주를 포함한 남부권을 ‘소부장·패키징 혁신 거점’으로 이원화했다.

이 중에서도 광주가 ‘첨단 패키징’ 특화 지역으로 낙점된 것은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반도체 설계 자산(IP)의 절대 강자인 ‘Arm’을 활용한 인재 양성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광주 반도체 생태계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반도체 미세공정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

회로 성능을 좁히는 것만으로는 성능 향상이 어려워지자, 업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칩들을 하나로 묶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앤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 역시 이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광주가 이 분야의 적임자로 꼽힌 배경에는 ‘AI 산업 중심지’라는 위상이 있다.

AI 연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칩이 필수적인데, 이를 시스템반도체와 결합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패키징이다.

정부도 언급했듯, 광주는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돼 있어 신규 패키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즉, 광주에서 데이터를 처리(AI 데이터센터)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두뇌(AI 반도체)를 조립·마감(패키징)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하드웨어 인프라 만큼이나 이번 전략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바로 ‘인재’다.

아무리 좋은 패키징 설비가 있어도 이를 운용하고 설계할 인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자산(IP)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인 ‘Arm’을 끌어들였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 ‘Arm 스쿨’을 유태해 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14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이는 광주 입장에서 천군만마와 같다. 패키징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칩의 구조를 이해하는 설계 역량이 필수적인데, Arm 스쿨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광주의 패밀리 및 패키징 현장에 투입된다면 ‘설계-후공정’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업의 연구거점을 유치해 한국을 ‘글로벌 설계·연구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구상은 구체적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R&D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 지역 제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자기업과 패키징 기업 간의

협작 패밀리(Fab) 추진’이다. 반도체 칩을 만드는 소자 기업과 이를 포장하는 패키징 기업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면 공정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앵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앤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이미 지역에

동지를 듣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국내외 유망 소부장 기업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제다. 정부 역시 광주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재정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다.

정부 지원의 보따리도 두둑하다. 당장 내년부터 국비 60억원이 투입돼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이 시작된다.

2030년까지 총 4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업들이 만든 칩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R&D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광주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5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실증 단계를 넘어 대규모 양산 지원 체계까지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칩 제조기업과 패키징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작 패밀리(Fab)’ 건설 지원

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광주행을 자극할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반도체 산업은 세계 전쟁?

K-반도체 비전·육성전략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경제 지도’ 다시 그린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

이재명표 예산 등 ‘14조 시대’

단발성 아닌 미래성장 엔진 장착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 제시

대 최대 증액 폭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화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결과”라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2027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미래 성장의 엔진을 장착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국가 AI·모빌리티 실증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13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618억 원이 증액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심을 누비게 된다. 또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벤치 조성에 56억 원을 투입해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지역 속원이었던 교통·생활 인프라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에 50억 원, 광주 군공항 터미널 확장과 이전에 35억 원이 증액됐으며, 광주천 하천 정비 사업 설계비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시대’를 열며 산업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농업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AX, 우주,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24개의 신규 사업 예산을 따냈다.

무안 항공특화단 지원과 AI 기반 생육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광양 철강·금속 AI 전환 실증센

터 설치 등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춘 ‘핀셋 지원’이 이뤄진다. 고흥을 중심으로 한 민간 우주 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에도 20억 원이 투입돼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교통망 확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목포) 사업에 200억 원이 증액됐고,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청룡’ 투입을 위한 전선소 용량 증설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목포역사 개량 사업(50억 원)과 신안 갤빛 박물관 리모델링 등 관광 인프라 예산도 확보했다.

강경화 광주시장은 “정청래 대표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 있게 반영됐다”며 “광주 시정 사상 유례없는 성과”라고 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정부안 단계에서 쟁취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0억 원이나 증액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당 지도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예산 성과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움직인 결과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신규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호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또 다른 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12·3 내란세력, 나치 청산처럼 강력 처벌”

민주당 지도부 광주서 천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에서 ‘12·3 내란세력’을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처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음모 세력 척결과 현정질서 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현법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물리친 원동력이 광

주 5·18 정신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과 부역자를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한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1단계 사법적 청산을 시작으로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도선인 기자 jusbh@kwangju.co.kr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